

## 한일의 미래, 관계개선은 국제적 관점에서

\* 이 자료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이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(한일의 미래, 관계개선은 국제적 관점에서('15.6.5)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양국관계의 악화 배경에는 3가지 구조변화
-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
- 중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

### □ 한일관계 악화의 구조적 요인

- 한일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양국관계가 나쁘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고, 그 원인이 일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,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에 있다고 보고 있음
- 그러나 한일관계의 악화는 지도자 개인의 자질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, 양국관계가 주로 다음 3가지 구조적인 변혁기에 들어와 있는데서 비롯된 것임
  - 첫째, 한국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상대국에의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
    -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및 징용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, 일본 국내에서는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임
    -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제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, 사법적 판단에서는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임
    - 이는 사회적 요구의 발현이기도 한데,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의 영향이 커져 외교당국이 국내정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 상황이며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임
  - 둘째, 양국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 즉 경쟁관계로 되고 있음
    - 그동안 한국경제도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발언력도 향상됨
    - 이제까지는 일본이 여유를 가지고 대응했으나 지금은 양국 모두 양보하는 자세가 없어짐
  - 셋째, 대중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. 한국은 북한을 생각해야만 하고, 또 대중 수출이 대일·대미 수출의 합계보다 커진 반면, 일본은 오히려 중국과의 대립이 확대되고 있음

## □ 한일 관계의 조정 시스템 구축해야

- 이상 3가지 점을 이유로,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으며, 양국 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
-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, 일본에서 한국이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소리가 들림
  - 실제로 한국의 여론조사에서는 경제적인 관계에서 중국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음
  -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음
    - 예를 들면 미국이 주도하는 THAAD(사드;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)의 한국 재배치 구상에 대하여, 한국은 미국에 명확히 거부해야 한다면, 한국의 태도에 불만을 보이기 시작
    - 중국은 북한과 한국을 완충지대로 하려하고 있을 뿐, 한국의 안보를 담당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는 대중경계감이 나오고 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의 문제는 정부 간 신뢰관계가 없는데다, 시민들 간 감정차원에서도 혐오감이 확산되고 있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명확해지지 않고 있음
  - 정부 간에는 정상들의 파이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나 기능이 부족해지고 있음
- 한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의 역사관에 대하여 80%가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음
- 일본에서 이와 같은 한국의 태도에 대하여,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고 있음
- 일본에서는 중일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은 고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한 중일 3국간 관계는 체로섬은 아님
  - 양국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, 관계개선을 해야 하나 현재로는 각각이 상대측에 공을 넘기는 움직임이 있음
  - 양국의 선거 등 정치일정의 타이밍이 엇갈리는 있는 점도 얹혀져 관계개선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음

## □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본의 행태

- 1965년 기본조약체결 이후 한일관계를 지탱해온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
  - 지난 50년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기초한 역사인식의 진전,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의 노력, 그리고 한일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기본으로 발전해왔음
- 그러나 최근 한일 간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나 위안부문제를 기술했던 1993년의 고노담화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부상하고 있음
  - 또 일본의 외교청서에서는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및 기본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 내용이 삭제됨
-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보면, 한일관계의 1965년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틀림없음
-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음
  - 총리 취임 전에는 일본이 지나치게 사죄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, 한국이나 중국에 끌려 다니는 외교는 더 이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
  - 침략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없는 것이 그의 지론임
    - 4월 22일 아시아·아프리카회의 정상회담과 4월 29일 미국의회 연설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, 마음속으로부터의 사과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않았음
  - 2번에 걸친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염두에 둔 청중은 동북아시아가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라는 것이 명백해짐
  - 제2차 세계대전 후 70년 담화도 아시아에 대한 고통이나 통절한 반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
-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,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및 그 이전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, 한국에서는 전후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임

-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기본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 내용을 삭제한 점을 생각하면, 일본이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
  - 또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도 삭제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
- 이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,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
- 나아가 미국에 대해서는,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만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로 악용될 여지도 있음
-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동일시하고 미국의 대변자로 칭하며 나서는 것이, 과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함

#### □ 한일관계의 자산증진은 동북아시아의 공공재 역할

- 일본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, 한일관계의 자산을 증진시켜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함
- 이에 더하여,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도 낮아지고 있음
  - 일본은 한국을 거들어보지 않고, 한국은 일본을 무시하고 있음
  - 일본 정계에서는 중일관계가 잘되면 한일관계도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,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은 것이 실상임

#### □ 한일관계 개선은 중일관계 개선에도 도움

- 그러나 일본은 중일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, 한일관계를 우선 개선시켜야만 함
  - 중국이 일본 고립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한국이 필요하나,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면 중국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

## □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방안

- 앞으로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,
  - 첫째, 한일은 국내 정치보다도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응시해야 함
    - 국제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협조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에 와있음
  - 둘째, 한일 간을 잇는 정치가, 기업인, 학자 등 관민의 정책파이프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
    - 양국 정치권에서는 상대국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크게 줄고 있고 관심도 줄어들고 있음
    -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일의 정책파이프 구축이 당면 과제임
  - 셋째,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, 한일이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는 자세를 고치고 서로 배려하고 쟁점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함
    - 50주년 기념일을 관계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 끝 